

【국 어 25문】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문 1 - 3】

(가) 오늘날, 우리는 민족 문화의 전통을 연암에게서 찾으려고는 할지언정, 고문과에서 찾으려고 하지는 않는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민족 문화의 전통에 관한 ㉠해명(解明)의 열쇠를 제시(提示)하여 주는 것이 아닐까?

전통은 물론 과거로부터 이어 온 것을 말한다. 이 전통은 대체로 그 사회 및 그 사회의 구성원(構成員)인 개인(個人)의 몸에 배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전통은 우리의 현실에 작용(作用)하는 경우(境遇)가 있다. 그러나 과거로부터 이어 온 것을 ㉡무턱대고 모두 전통이라고 한다면, 인습(因襲)이라는 것과 구별(區別)이 서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인습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만, 계승(繼承)해야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과거에서 이어 온 것을 객관화(客觀化)하고, 이를 비판(批判)하는 입장에 서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그 비판을 통해서 현재(現在)의 문화 창조(文化創造)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만을 우리는 전통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이같이, 전통은 인습과 구별될뿐더러, 또 단순한 유물(遺物)과도 구별되어야 한다. 현재에 있어서의 문화 창조와 관계가 없는 것을 우리는 문화적 전통이라고 부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나) 한편, 우리가 계승(繼承)해야 할 민족 문화의 전통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연암의 예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과거의 인습(因襲)을 타파(打破)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노력(努力)의 결정(結晶)이었다는 것은 지극히 중대한 사실이다.

(다) 피와 뼈와 살을 조상(祖上)에게서 물려받았을 뿐, 문화(文化)라고 일컬을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이 서양(西洋)에서 받아 들인 것들인 듯싶다. 이러한 현실(現實)을 앞에 놓고서 민족 문화(民族文化)의 전통(傳統)을 찾고 이를 계승(繼承)하자고 한다면, 이것은 편협(偏狹)한 배타주의(排他主義)나 국수주의(國粹主義)로 오인(誤認)되기에 알맞은 이야기가 될 것 같다.

그러면 민족 문화의 전통을 말하는 것은 반드시 보수적(保守的)이라는 ㉢명예를 메어야만 하는 것일까? 이 문제(問題)에 대한 올바른 해답(解答)을 얻기 위해서는, 전통이란 어떤 것이며, 또 그것은 어떻게 계승되어 왔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라) 요컨대, 우리 민족 문화의 전통은 부단(不斷)한 창조 활동(創造活動) 속에서 이어 온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계승(繼承)해야 할 민족 문화의 전통은 형상화(形象化)된 물건(物件)에서 받는 것도 있지만, 한편 창조적(創造的) 정신 그 자체(自體)에도 있는 것이다.

(마) 원효는 당시의 유행(流行)인 ㉣서학(西學)을 하지 않았다. 원효의 ‘화엄경소(華嚴經疏)’가 중국(中國) 화엄종(華嚴宗)의 제3조(第三祖) 현수(賢首)가 지은 ‘화엄경탐현기(華嚴經探玄記)’의 본이 되었다. 원효는 여러 종파(宗派)의 분립(分立)이라는 불교계(佛敎界)의 인습에 항거(抗拒)하고, 여러 종파의 교리(敎理)를 통일(統一)하여 해동종(海東宗)을 열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승려(僧侶)들이 귀족(貴族) 중심의 불교(佛敎)로 만족할 때에, 스스로 마을과 마을을 돌아다니며 배움 없는 사람들에게 진도(傳道)하기를 꺼리지 않은, 민중 불교(民衆佛敎)의 창시자(創始者)였다. 이러한 원효의 정신은 우리가 이어받아야 할 귀중한 재산(財産)이 아닐까?

(바) 이러한 의미에서, 민족 문화의 전통을 무시(無視)한다는 것은 지나친 자기 학대(自己虐待)에서 나오는 편견(偏見)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첫머리에서 제기(提起)한 것과 같이, 민족 문화의 전통을 계승하자는 것이 국수주의(國粹主義)나 배타주의(排他主義)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왕성(旺盛)한 창조적 정신은 선진 문화(先進文化) 섭취(攝取)에 인식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새로운 민족 문화의 창조(創造)가 단순히 과거의 묵수(墨守)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또 단순한 외래 문화(外來文化)의 모방(模倣)도 아닐 것임은 스스로 명백한 일이다. 외래 문화도 새로운 문화의 창조에 이바지함으로써 뜻이 있는 것이고, 그러함으로써 비로소 민족 문화의 전통을 더욱 빛낼 수가 있는 것이다.

【문 1】 위 글에서 (가)~(마)를 논지 전개에 맞게 바르게 배열한 것은?

- ① (나)-(다)-(가)-(마)-(라)
- ② (다)-(가)-(나)-(마)-(라)
- ③ (나)-(가)-(마)-(다)-(라)
- ④ (다)-(나)-(마)-(가)-(라)

【문 2】 위 글에 나타난 필자의 태도와 거리가 먼 것은?

- ① 민족 주체성을 지키기 위해 국수주의나 배타주의는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다.
- ② 거의 모든 문화가 서구화된 현실 속에서 전통 문제를 철저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 ③ 새로운 민족 문화 창조에 도움이 된다면 외래문화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 ④ 과거의 인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전통을 이어받아야 한다.

【문 3】 위 글에서 밑줄 친 ㉠ ~ ㉣의 의미로 옳바르지 않은 것은?

- ① ㉠ - 시사(示唆)하여 ② ㉡ - 비판 없이
- ③ ㉢ - 구속을 받아야만 ④ ㉣ - 당나라 유학

【문 4】 다음 관용어의 쓰임이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귀가 여러다 → 속는 줄도 모르고 남의 말을 그대로 잘 믿는다.
- ② 머리를 맞대다 → 어떤 문제에 대하여 의논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이 만나 지혜를 모으다.
- ③ 귀가 뚫리다 → 말을 잘 알아듣게 되다.
- ④ 눈에 밝히다 → 지난 일이나 대상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 기억에 생생하다.

【문 5】 다음 중 우리말 어법에 맞고 자연스러운 문장은?

- ① 이번 사업 실패로 집안이 풍지박산이 되었다.
- ②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집중력을 필요로 합니다.
- ③ 동생이 반 대표로 뽑혀져서 교내 웅변대회에 나가게 되었다.
- ④ 갑작스런 태풍으로 남해안 지방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문 6 - 7】

..... 펼쳐진 부채가 있다. 부채의 끝 넓은 테두리 쪽을, 철학과 학생 이명준이 걸어간다. 가을이다. 거드랑이에 낀 대학신문을 꺼내 들여다본다. 약간 자랑스러운 듯이. 여자를 깔보지는 않아도, 알 수 없는 동물이라고 여기고 있다.

책을 모으고, 미래를 구경하러 다닌다.

정치는 경멸하고 있다. 그 경멸이 실은 강한 관심과 아버지 일 때문에 그런 모양으로 나타난 것인 줄은 알고 있다. 다음에, 부채의 안쪽 좀더 좁은 너비에, 바다가 보이는 분지가 있다. 거기서 보면 갈매기가 날고 있다. 윤애에게 말하고 있다. 윤애 날 믿어 줘. 알몸으로 날 믿어 줘. 고기 썩는 냄새가 역한 배 안에서 물결에 흔들리다가 깜빡 잠든 사이에, 유토피아의 꿈을 꾸고 있는 그 자신이 있다. 조선인 폴호즈 숙소의 창에서 불타는 저녁놀의 힘을 부러운 듯이 바라보고 있는 그도 있다. 구겨진 바바리코트 속에 시래기처럼 바랜 심장을 하고 은혜가 기다리는 하숙으로 돌아가고 있는 9월의 어느 저녁이 있다. 도어에 뒤통수를 부딪치면서 악마도 되지 못한 자기를 언제까지나 웃고 있는 그가 있다. 그의 삶의 터는 부채꼴, 넓은 데서 점점 안으로 오므라들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은혜와 둘이 안고 텅굴던 동굴이 그 부채꼴 위에 있다. 사람이 안고 텅구는 목숨이 꿈이 다르지 않느니. 어디선가 그런 소리도 들렸다.

㉠그는 지금, 부채의 사복 자리에 서 있다. 삶의 광장은 좁아지다 못해 끝내 그의 두 발바닥이 차지하는 넓이가 되고 말았다. 자 이제는? 모르는 나라, 아무도 자기를 알 리 없는 먼 나라로 가서, 전혀 새사람이 되기 위해 이 배를 탔다. 사람은,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기 성격까지도 마음대로 골라잡을 수도 있다고 믿는다. 성격을 골라잡다니! 모든 일이 잘 될 터이었다. 다만 한 가지만 없었다면. 그는 두 마리 새들을 방금까지 알아보지 못한 것이었다. 무덤 속에서 몸을 푼 한 여자의 용기를, 방금 태어난 아기를 한 팔로 보듬고 다른 팔로 무덤을 깨뜨리고 하늘 높이 치솟는 여자를, 그리고 마침내 그를 찾아내고야 만 그들의 사랑을.

돌아서서 마스트를 올려다본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다. 바다를 본다. 큰 새와 꼬마 새는 바다를 향하여 미끄러지듯 내려오고 있다. 바다. 그녀들이 마음껏 날아다니는 광장을 명준은 처음 알아본다. 부채꼴 사복까지 뒷걸음질친 그는 지금 펑그르르 뒤로 돌아선다. ㉡제정신이 든 눈에 비친 푸른 광장이 거기 있다.

【문 6】 위 글의 서술상의 특징과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주인공의 회상을 통하여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고 있다.
- ② 상징적 기법을 통해 인물의 고뇌를 형상화하였다.
- ③ ‘의식의 흐름’ 기법을 통해 주인공의 내면세계를 서술하였다.
- ④ 풍자적인 언어 사용이 작품의 비극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문 7】 밑줄 친 ㉠, ㉡의 의미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 - 진정한 광장을 찾아 나섰던 주인공의 삶의 과정을 고려해 볼 때, 부채는 ‘주人公의 삶 자체’를 의미한다.
- ② ㉠ - ‘사복 자리’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곳’을 의미한다.
- ③ ㉡ - 주인공의 적극적 선택의 결과로 얻어진 공간을 의미한다.
- ④ ㉡ - 이념의 대립과 사상의 갈등이 없는 평안한 휴식처를 의미한다.

※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문 8 - 9】

㉠판잣집 유리막지에
아이들 얼굴이
불타는 해바라기 마냥 걸려 있다.

내려쪼이던 햇발이 눈부시어 돌아선다.
나도 돌아선다.
울상이 된 그림자 나의 뒤를 따른다.

어느 접어든 골목에서 ㉢걸음을 멈춘다.
㉡젓터미가 소복한 울타리에
㉣개나리가 망울졌다.

저기 언덕을 내려 달리는
㉠소녀의 미소엔 앞니가 빠져
죄 하나도 없다.

나는 술 취한 듯 흥그러워진다.
그림자 웃으며 앞장을 선다.

【문 8】 위 시에서 희망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소재는?

- ① ㉠
- ② ㉡
- ③ ㉢
- ④ ㉣

【문 9】 ㉠에서 암시하고자 하는 바로 가장 적당한 것은?

- ① 절망적 현실을 밝게 보려는 시각
- ② 가난에 대한 두려움
- ③ 현장감을 강조하는 행위
- ④ 현실을 벗어나고자 하는 절규

【문 10】 다음 ㉠ ~ ㉣에 들어갈 말을 차례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누가 이번 경기에서 우승할 것인지 (㉠)하기 어렵다.
- 간단한 인사로 환영의 말을 (㉡)합니다.
- 이 정도의 인원이 식사를 할 경우 (㉢)을 잘해야 낭비를 줄일 수 있다.
- 성공과 실패는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실천했느냐로 (㉣)이 난다.

- ① 가늠-갈음-가늠-가름
- ② 가늠-가늠-갈음-가름
- ③ 가름-갈음-가늠-가름
- ④ 가름-가늠-가늠-갈음

【문11】 다음의 밑줄 친 표현들 가운데 바르지 못한 것은?

- ① 무슨 이유인지 그는 안절부절하고 서 있었다.
- ② 선두에 서려면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라.
- ③ 추운데 밖에 나가지 않도록 해라.
- ④ 막내아들은 아직 학교 가기 전이라 글씨가 괴발개발이다.

【문12】 다음 시에 대한 감상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앞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 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 ① 이 시의 시상 전개 과정은 과거-미래-현재 순이다.
- ② ㉠, ㉡이 공통적으로 지니는 의미는 ‘압울한 시대 상황’이다.
- ③ ㉢은 화자가 추구하는 순수 이상적 가치를 의미한다.
- ④ ㉣은 시련 속에서도 양심을 지키며 사는 순결한 삶을 의미한다.

【문13】 다음 괄호 속의 한자가 틀린 것은?

자본주의 세계 ㉠체제(體制)의 성립과 더불어 지구화는 새로운 면모를 드러낸다. ㉡강력(強力)한 국민국가 체제를 먼저 정립한 서구가 비서구를 식민지화하는 ㉢양상(樣象)이 그것이다. 서구의 식민주의에 대해 비서구는 민족주의로 대항한다. 식민주의와 민족주의가 뚜렷한 특징으로 나타나는 16세기 자본주의 세계 체제 이후의 지구화를 우리는 2차 지구화라 부를 수 있다. 2차 지구화에서는 국민국가가 주요한 역사적 ㉣행위(行爲)자라 하겠다.

- ① ㉠ ② ㉡ ③ ㉢ ④ ㉣

【문14】 다음을 하나의 문단으로 엮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가)그러나 만사가 겉으로 보이는 대로만은 아니다.
(나)뱀과 인간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다)분명히 뱀은 배로 기고, 인간은 발로 똑바로 걷는다.
(라)정신적으로는 배를 땅에 기는 인간이 있지 않은가?

- ① (가)-(다)-(나)-(라)
- ② (가)-(라)-(나)-(다)
- ③ (나)-(다)-(가)-(라)
- ④ (나)-(가)-(다)-(라)

【문15】 다음 글에서 언급된 내용으로 보기에 가장 어려운 것은?

3세기경의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여러 부족의 생활 상태를 기록한 ‘삼국지(三國志) 위지(魏志) 동이전(東夷傳)’과 기타 중국 사적(史籍)의 단편적인 기록들에 의하면, 어느 부족 사회에서나 일년에 한두 차례의 대회를 열고 제천 의식(祭天儀式)을 거행하면서, 부족 의식을 연마하고 가무 백희(歌舞百戲)를 연행(演行)하였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우리는 우리 나라의 원시적 축제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부여의 영고(迎鼓), 고구려의 동맹(東盟), 예의 무천(舞天), 마한의 춘추제(春秋祭) 등을 그 대표적인 고대 제의(祭儀)로 들 수 있는데, 그것은 ‘연일 음식 가무(連日飲食歌舞)’ 또는 ‘주야 음주 가무(晝夜飲酒歌舞)’ 하는 축제였으나, 아직 의례(儀禮)에서 분화되지 않은 단계로 보인다.

이러한 제천 의례의 전통은 국가적 행사인 공의(公儀)와, 민간의 마을굿(도당굿, 별신굿, 단오굿, 동제 등)의 두 갈래로 전승되어 오면서 우리 나라 축제의 맥을 이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신라의 대표적인 공의는 팔관회였는데, 진흥왕 12년(551년)에 전사한 사졸들을 위한 위령제로서 시작하였다고 한다. 이를 계승한 고려조의 팔관회는 국가적 행사로 고구려의 동맹과 신라의 팔관회를 통합한 민족적 수호제로서 중동(仲冬)에 행하여졌는데, 상원(上元)의 연등회와 더불어 양대 국가 축전의 행사였다. 천령(天靈)과 오악 명산(五岳名山), 대천(大川), 용신(龍神) 등 토속신에 대한 제천인 팔관회나 불사(佛事)의 제천인 연등회에서는 그 대상이 다를 뿐, 양자는 다 같이 소회일(小會日)과 대회일(大會日)이 있어, 궁중의 뜰에 윤등 일좌(輪燈一座)를 놓고, 사방에 향등(香燈)을 밝히고, 높이 5장이나 되는 채봉(綵棚)을 양쪽에 설치하고, 그 앞에서 가무 백희를 봉정하고, 더불어 주과(酒果)와 음악으로 대축연을 베풀며, 제불(諸佛)과 천지 신명(天地神明)을 즐겁게 하여 국가와 왕실의 태평을 기원하였다. 이 때, 백관이 행례하고, 왕은 위봉루에 출어하여 이를 보았다. 특히, 대회일에는 송의 상인, 여진, 탐라, 일본 등의 외국인이 조하(朝賀)하여 예물과 명마(名馬) 등을 바치는 국제적 행사의 성격을 띠었다.

- ① 신라 팔관회의 구성
- ② 우리 나라 축제의 기원
- ③ 고대 제천 의례의 목적
- ④ 고려 팔관회의 특성

【문16】 밑줄 친 부분의 단어 사용이 올바른 것은?

- ① 설령탕에는 깎두기를 곁들여 먹어야 제격이다.
- ② 그녀는 오자마자 균세 떠났다.
- ③ 내 노래로 분위기는 절정에 다달았다.
- ④ 이번에 나온 자동차는 깎질만 우리 것일 뿐 대부분 외제이다.

【문17】 다음 글의 ()에 들어가기에 적절하지 않은 한자 성어는?

이번 조치로 잠깐 숨은 돌리겠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은 채 방치하는 ()만으로는 추후 새로운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① 고식지계(姑息之計) ② 미증유(未曾有)
- ③ 하석상대(下石上臺) ④ 미봉책(彌縫策)

